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일본편

19 모리 미술관

갤러리 탈피... 도심속 공공미술 이끈다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은 도쿄 롯폰기(六本木)힐즈의 모리타워에 입주한 고공(高空) 미술관이다.

도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통하는 모리타워에 입주한 미술관은 롯폰기 재개발 계획을 추진한 일본의 부동산 개발 모리 부동산 소유의 사설 미술관으로 지난 2003년 개관했다.

모리타워의 52층, 53층에 자리잡고 있는 모리 미술관은 새로운 형태의 갤러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복합 예술공간이다.

도쿄 중심 모리 타워 꼭대기 복합예술공간 또 현대미술 특화... 직장인 위한 야간 개장도

52층의 타워에는 도쿄 시내가 조망되는 통유리창의 전망대(도쿄 시티 뷰) 공간이 있다. 창가에는 벤치가, 한편에는 두 다리 보행형 로봇 '아시모'의 활동 공간(스튜디오 아시모)이 있다.

모두 6개 미술관을 갖추고 있는 모리미술관은 역동적인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현대미술의 '발신기지'다. 미술, 건축, 디자인, 사진 등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술관은 건축, 패션, 영상, 사진 등 현대미술품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보여 주는데 아시아의 어느 도시보다도 다채롭게 현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도쿄의 랜드마크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리타워. 모리 미술관은 모리타워 52, 53층에 자리잡고 있다.



모리 미술관 입구 광장에 설치된 루이즈 부르주아의 '거미(Spider)'.



모리미술관에 전시 중인 '웃는 사람의 죽음' (마르코 사브스 작), '하얀배출'(가네우지 테페이 작)과 '두 개의 오렌지 껍질'(매트 존슨 작)(위로부터)

오는 26일부터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삶과 예술을 소개하는 회고전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 유럽 등 서양미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특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젊은 미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전 학예실장이었던 김선희씨가 큐레이터를 맡기도 했으며, 설치미술가 전준호, 김홍숙씨 등 젊은 미술인들이 단체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또 이 타워를 중심으로 호텔(그랜드 하이엇)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9개가 몰려 있는 시내마 콤플렉스(버진 시네마스), 공동주택(레지던스), 쇼핑몰(할리우드 뷰티 플라자) 등이 어울려 있다.

모리 미술관은 '야간 미술관'이라는 별명도 얻고 있다. 지난 2003년 개관 당시부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시간을 밤 10시까지 늦췄기 때문이다.

최근 모리 미술관은 갤러리 중심이라는 개념을 탈피해 도심으로까지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밖에서도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공미술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발길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모리타워 입구를 비롯 건물 주변에도 공공미술작품들이 즐비하다.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개관 때 설치된 루이즈 부르주아의 '거미', 미야자마의 거대한 조각,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만든 여러 벤치 등이 그것이다.

심포지엄·워크숍·갤러리 투어... 소외 이웃 찾아가는 미술관

모리 미술관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

모리 미술관은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전시관으로 꼽힌다.

모리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난해한 현대미술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일반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퍼블릭 프로그램(pubic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프로그램은 매 전시회 때마다 열리는 것

으로 미술 심포지엄, 강연, 워크숍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큐레이터가 어린이들과 함께 전시장을 순회하는 갤러리 투어는 학부모들에게 사랑받는 행사 가운데 하나다.

학교 프로그램은 모리 타워 인근 지역 보육원과 유치원, 대학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 행사다. 또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미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를 위한 미술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예술교육에 관한 수업안 제작 지원'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다. 모리미술관 주변 미나토구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포터 스태프(supporter staff)' 프로그램은 미술인내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뒤 이들을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pubic program)에 폭넓게 참가시키고 있다.



모리 미술관은 각급 학교와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다양한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야네'.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파이더맨3' and '쉬즈 더 맨'.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못말리는 결혼' and '넘버23'.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못말리는 결혼' and '극락도 살인사건'.

Advertisement for Mudeung극장, listing movies like '극락도 살인사건' and '눈물이 주룩주룩'.

Advertisement for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파이더맨' and '못말리는 결혼'.